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4월 5일 금요일 (음 3월 1일)

제226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출정식이 4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관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정동영 민주당평화당 대표, 김광수 민주당평화당 국회의원의 등 참석자들이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전주 특례시 지정, 시민 열망 결집

시, 범시민 서명운동 출정식 개최... 전북발전 위한 특례시 지정 촉구 '한목소리'  
내달 3일까지 한달동안 시민 30만명 서명 목표로 전개...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

전주시를 특례시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전주시민들이 전북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킬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열망을 하나로 결집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4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정동영 민주당평화당 대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김광수 국회의원의 원,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김동원 전북대 총장과 김우영 전주대 총장을 비롯한 교육, 금융, 종교, 문화, 경제 분야 등 각계각층 인사와 주민자치협의회와 통장협의회 등 전주시 자생단체들을 주축으로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에 공감한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시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이자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출정식을 가졌다.

자생단체와 봉사단체, 시민단체, 정치권, 언론, 종교 등 각 분야별 단체 대표의 특례시 열망담과 시민대표의 서명운동 출정선언, 특례시 지정 촉구 및 시민 서명 퍼포먼스, 구호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출정식에서 참석자들은 광역시가 없어 실용을 겪어온 전북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시민 자유발언 순서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발언 기회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등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한 열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겪어온 전북도민으로서 겪어온 실용 등을 강하게 성토했기도 했다.  
이날 출정식은 참석자 전원이 국가 균형발전과 광역시 없는 전북 발전을 위해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되도록 기

준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구호를 제창하는 것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시는 이날 출정식을 시작으로 오는 5월 3일까지 한 달 간 시민 30만명 서명을 목표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서명운동 참여는 35개 동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 비치된 서명부에 직접 서명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로도 참여할 수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우리의 문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60만 시민의 힘으로 특례시 기준 100만명을 뛰어 넘어야 한다"며, "오늘 결집된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특례시 지정에 성공해 광역시 없는 50년 낙후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 대표사업 추진

전북도는 4일 산업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대표사업으로 포함되어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해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새만금 비전선 포식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발표한 사업으로 새만금에 태양광 3GW, 해상풍력 1GW 단지조성, 이와 연계하여 제조·시공업체·연구기관 집적화, 재생에너지 R&D기관 및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등이 포함된 11개 사업 5,6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이다.  
도는 새만금의 우수한 자연환경, 인허가가 좋은 여건 등을 활용해 새만금에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를 조성하고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김진성 기자

## 국가안전대진단 직접 챙기기 나섰다

송하진 도지사, 관광한옥리조트 등 숙박시설 점검 현장 방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4일 도내 숙박시설의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현장을 찾아 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완주의 관광한옥리조트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해 안전사고와 화재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주문하고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평소에도 안전관리 최우선 행정을 주문해온 송 지사는 지난 3월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에 이어 지속적인 현장행정을 통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점검 및 시설 관리자들을 격려하고, 밀양·제천 화재,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등과 같이 관리소홀로 인해 도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1호' 수소충전소 구축

도-전주시-완주군-전북테크노파크-현대차 업무협약 체결  
올해 안에 완주에 최대 규모 수소상용차 겸용 충전소 설치

전북도는 4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전북 1호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전주시, 완주군, 전북테크노파크, 현대자동차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 박성일 완주군수, 김형조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 도의회 송지용 부의장, 두세훈의원 및 전북테크노파크 김영권 단장, 현대자동차 문정훈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도, 완주군,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1호 수소충전소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현대자동차는 부지제공 및 기술적 지원, 전주시는 수소 대중교통 보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1호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2019년도 사업비 총 58억원(국비 15억원, 도비 25억원, 현대자동차 18억원)을 투자하여 완주군에 전국 최초·최대 규모의 수소상용차(승용차, 버스, 트럭) 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이다.  
일반 수소충전소의 경우 건축비를 제외하고 충전소 설비비용으로 30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전북1호 수소충전소는 건축비 18억원을 제외하고 약 4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수소상용차 충전이 가능한 충전용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소충전압력을 기존 700bar에서 900bar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타 지역 수소충전소에 비해 시간당 3.5배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olm NAVER jjctv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